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출중제 적용 대상 기업 축소

경영 노트

-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기준, ISO 26000

사회 트렌드

- 한국의 여권(女權)

저널 브리프

- 동남아 성장엔진, 베트남의 WTO 가입

洗心錄

- 위렌 베니스의 리더십 원칙

□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 축소

- 정부는 지난 15일 출자 총액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후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쳐 2007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정부안에 따르면 출자 총액 적용 대상은 현재의 자산 6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서,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 중핵(中核)기업으로 변경됨
 - 동일 기업 집단 계열사의 출자 한도의 경우에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방침임
 - 한편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장했던 환상형 순환 출자(A기업→B기업→C기업→A기업의 형태) 금지의 직접 규제는 포함되지 않고, 다만 기업이 환상형 출자 구조를 해소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자율적인 개선책으로 결정됨
-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경우,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은 14개 기업 집단(343개 기업)에서, 7개 기업 집단(24개 기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새로운 기준에도 여전히 출총제에 묶이게 되는 기업은 삼성 7개, 현대·기아차 5개, SK 3개, 금호아시아나 3개, 롯데 3개, 한화 2개, GS 1개 등임
 - 현대그룹의 경우 2005년 말 현재 약 7.1조 원의 자산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출자총액 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
- 그러나 정부의 출총제 개편안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이번 총액 출자 제한 완화 조치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사실상 중핵 기업들의 출자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핵 기업들이 여전히 출자 총액 제한 기업으로 묶여 있을 경우 큰 폭의 투자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당정 협의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그동안 재계가 주장했던 출총제 폐지 및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방안이 논의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기준, ISO 26000*

- (현황)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의 국제 표준 제정을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 표준화 취지는 기업을 비롯한 정부, NGO 등 모든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표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는 것임
 - ISO는 오는 2008년 말까지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제기구와 금융 기관 및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 (전망) 사회적 책임의 표준이 인증 목적이 아닌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 각국에서 준규범적 성격을 지닌 국가 표준으로 채택될 전망
 - 사회적 책임의 핵심 이슈가 대부분 기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향후 국제 거래 및 투자 등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업에게는 국제적 강제 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 향후 산업발전법** 개정시 SR개념의 포함이 검토되고 있어 새로운 기업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ISO 26000 사회적 책임의 핵심 이슈 >

7대 핵심 이슈	주요 내용
환경	오염 방지, 지구온난화 방지, 미래 세대 존중 등
인권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노동기본권, 공동체 권리 등
노동 문제	산업 보건 및 안전, 노동 조건, 인력 개발 등
조직 지배 구조	윤리적 행동, 정보 공개, 규칙 또는 법률 존중, 책임성 등
소비자 이슈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 안전과 신뢰의 제품, 개인정보 보호 등
공동체 참여/사회 발전	개발 효과, 사회발전, 공동체 참여, 자선 등
공정한 조직 운영	자유경쟁 증진, 지적재산권 및 사용자 이해, 반부패 등

- (시사점) 사회적 책임에 관한 ISO 26000의 핵심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 실천 방안 및 홍보 전략 개발 등 기업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
 - NGO,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실천 성과의 효과적인 홍보로 반기업정서의 확산 방지 및 기업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ISO 26000이란, 2004년 10월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으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겠다는 ISO 제안서의 문서번호(ISO/TMB N 26000)에서 유래

** 산업발전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종전의 공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제정됨.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 전문 9장 4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의 여권(女權)

- 한국의 여권은 조사 대상 75개 국 가운데 53위인 것으로 조사됨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이 올해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평가 결과 여성권한척도 지수 0.502를 기록, 지난해보다 6계단 높은 53위를 차지함
 - GEM은 국회의 여성의석 비율과 기업의 고위직 임원, 전문직여성 비율, 남녀 소득비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해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임
 - 노르웨이의 GEM은 0.932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스웨덴(0.883), 아이슬란드(0.866), 덴마크(0.861)가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0.707)가 18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0.557)은 42위임
 - 한국은 2004년 68위에서 2005년 59위 등으로 순위가 높아져 여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비율, 여성전문직 비율 등이 평가 대상 국가의 전체 평균에 크게 미달한 상황임
 -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 평균 18.5%보다 낮은 13.4%이며 상위 30개국 평균인 26.7%의 절반에 불과함
 - 전문기술직 여성비율의 전체 평균은 48.4%(상위 30개국 평균 51.8%)인 반면 한국은 38%에 그침
 - 특히 우리 나라의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여성비율은 7%에 불과해 전체 평균 28.3%와 상위 30개국 평균 31.1%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남

- 한국의 여성권한척도를 낮춘 가장 큰 원인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여성 관리직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임
 -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성별 고용평등 지표를 보면 지난해 여성 관리직 비율은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은 8.1에 그치며, 성별 고용평등 지표는 55.7로 여성의 고용상 지위가 남성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임

□ 동남아 성장엔진, 베트남의 WTO 가입*

- (베트남의 WTO 가입과 대외 개방)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2006년 11월 7일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개선하는 등 시장을 개방함
 - (WTO 가입)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고, 1995년 미국과의 수교를 맺은 이후 2006년 11월 7일 국제무역기구(WTO)의 150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 (대외 개방) 베트남은 통합투자법(2006년 7월 1일) 시행을 통해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수준을 자국 기업 수준 이상으로 높일 계획임
 - 통합투자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법을 통합한 법으로 1,900만 달러 이하의 투자 자유화, 국영기업의 시장독점 억제, 외국인 투자 우선 프로젝트 확대,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30여 개의 투자 관련법을 개선한 것임
- (전망) 낮은 임금과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베트남은 WTO 가입으로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동남아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의 교역 증대) 섬유, 신발 등에 대한 선진국의 일반 특혜관세 적용으로 5년 내에 수출(2005년 320억 달러)은 1,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외국기업의 신규 투자(同 60억 달러) 또한 10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 2005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수출(36억 1,100만 달러, 베트남의 총수입액의 9.9%), 수입(6억 9,400만 달러, 베트남의 총수출액의 2.2%), 투자 규모(5억 8,077만 달러)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양국간 경제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동남아의 성장엔진) 중국보다 낮은 평균임금 수준과 최근 8%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베트남이 모든 국제장벽을 허물고 WTO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동남아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11. 2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워렌 베니스의 리더십 원칙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워렌 베니스와 로버트 타운센드의 대화로 꾸며진 『리더를 말하다』(Reinventing Leadership)에서 두 사람은 리더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야망. 우수한 지능과 명료하게 말하는 능력. 그리고 봉사자의 마음가짐.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야망’이다. 야망과 어느 정도의 권력 추구는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선 곤란하다. 야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self-control)할 줄 알아야 한다. 이란-콘트라 스캔들과 관련해서 상원위원회에 나와 증언했던 조지 솔츠 의원에게 대니얼 이노우에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에 한마디 조언하신다면?”하고 물은 적이 있다. 솔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네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권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영리한 지능’과 남을 설득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리더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내린 결정들을 부하들에게 명료하게 알릴 줄 알아야 한다. 지능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알 수 없지만 화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셋째, 리더는 직원들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리더라면 직원이 높은 성과를 내고 자신의 역량을 높이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멘터(mentor)가 되어야 한다. 리더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자신의 탓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유능한 리더는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이 있되 결코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봉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늘 감사할 줄 안다.

欲致魚者先通水 (욕치어자선통수)

欲來鳥者先樹木 (욕래조자선수목)

물고기가 이르게 하고 싶거든 먼저 물길을 트고,
새가 오게 하고 싶거든 먼저 나무를 심어라.

-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